

여수시 '긴급 이동 멈춤' 효과

시행 2주만에 확진자 71.8% 감소... '이동멈춤' 해제·거리두기는 3단계 유지

여수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운영한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8월 1일 오전 10까지 일주일간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을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주 78명이었던 데 비해 22명으로 56명이 줄면서 71.8% 감소했다.

이 기간에 발생한 22명의 확진자 중 13명은 자가 격리 중 발생이며 해외입국자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확진자 접촉 5명, 기타 유증상자 2명이다.

이동멈춤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분석한 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은 전주 대비 13.2% 감소했다.

시내 주요 주차장 이용률은 3%, 주요 관광지인 오동도, 향일암 입장객도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일주일간 불편을 견뎌내고 이동멈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2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재개와 이동멈춤이 해제됨을 알려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으로 26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른 3단계는 8일까지 유지한다"면서 "타 지역 방문 자제와 불가피한 모임 시 감염을 최소화



여수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운영한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간'의 효과를 내고 있다. 긴급 이동멈춤 운동 홍보 차량. <여수시 제공>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이 있는 곳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비수도권 3단계 시행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개장 해수욕장, 해양공원, 중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채택 안된 공익성 민원 재검토한다 곡성군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 도입

권익위 신문고 홈페이지 신청

곡성군이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재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

곡성군은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된 민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 미비, 불명확한 법령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는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 민원인, 제안인이 광역지자체에 제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곡성군은 국민신청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 단순 제안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재검토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광양시, 추경 7억 확보... 지역상품권 판매 재개

광양시가 추경예산으로 7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를 재개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0억원의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다. 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으며, 시민들의 할인 판매 재개 요구가 끊임없었다.

상품권 판매를 재개한 광양시는 할인 판매를 위한 7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일반판매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1년 광양사랑상품권 판매 수요를 분석해 내

년 본예산에 할인판매액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이용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를 확대했다.

애초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와 농협은행광양시청출장소 등 2곳에서 지역 단위 농협을 포함해 모두 27개소로 확대했다.

또 상품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신청서를 연초부터 접수받아 상품권 가맹점 4561개소를 확보했으며, 판매점마다 등록증과 스티커를 나눠 주기도 했다.

광양시에서 판매된 올해 상품권은 총 276억원이다.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발행이 46억1000만원이고, 포스코광양제철소와 협력사협회가 구매한 상품권이 79억 9000만원, 할인 판매 150억원이다.

광양시는 이번에 할인판매할 70억원과 전 시민에게 지급 예정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375억원 등 445억원이 9월까지 지급되면 올해 이미 판매한 상품권 276억원을 포함해 총 721억원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탱크터미널 배상금 관련자 모두에 구상권 청구" 시민단체 "혈세로 지급 안돼... 모르쇠 행정에 경종 울려야"

광양의 시민단체가 광양탱크터미널 배상금과 관련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광양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광양탱크터미널 손해배상소송 관련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탱크터미널 측이 광양시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광양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25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양탱크터미널 측은 지난 2010년 2월 광양시 중동 홈플러스 옆 공유수면일원에 대형유류저장시설을 짓겠다고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중마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립 반대를 주장했고, 광양시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공

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업체 측은 시의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광양탱크터미널 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끝에 일부 승소하고 광양시에 민사소송 판결금을 청구했다.

시는 제1회 추경예산에 광양탱크터미널 민사소송 판결금을 반영했고, 광양시의회는 30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판결금을 원안결했다.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의회는 인허가 사항 등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즉각 공개하라"며 "시민을 기망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풍덕동 행복센터서 얼음생수 드세요"

이달까지 진행

순천시 풍덕동 행복복지센터가 방문객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풍덕동 행복복지센터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얼음 생수 무료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폭염 예방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사 출입문 앞에 대형 아이스박스를 비치하고 지역 노인들과 민원인들을 비롯한 내방객들이 자

유롭게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다. 행사는 폭염이 잦아드는 8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순금 풍덕동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예술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팬덤 문화 장르가 된다

팬덤 문화 장르가 된다

-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팬덤, 대중문화 지형에 큰 영향
- 글로벌 마켓 신기록 쓴 햄버거 없는 'BTS 세트'
- 스타를 키우고 지키는 팬덤의 선한 영향력
- 중장년 팬덤 대중문화 전면에 나서

향로 오디세이 美路 味路

진도는 두말없이 멋스럽다

- 대한민국 민족문화예술 특구의 매력여행지
- 현지의 맛 로컬 브랜드-곰창김과 들김, 울금
- '카페 도깨'에서 '진도'를 만나요

화제의 전사-이건희 컬렉션 광주·서울전 '기다려왔던 국보와 명작' 이건희컬렉션과 설레는 만남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첫시집 퍼낸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시인 진혜진

에앙 초대석

우리 역사 '아픔' 주목한 그래픽 노블 작가 김금숙

"영웅보다 소소한 삶이 더 다가와요"

로컬 문화현장-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생명의 기운 넘실대는 김병중의 화폭

여름기획-전시-자연에서 힐링

전시로 힐링 제주 빛의 벵커에서 '지중해로의 여행' 전

자연에서 힐링 가슴 탁 트이는 전남여행지 Best 5

문화는 품은 건축물 ④ 신사립파 거장의 따뜻한 '집' 백영수미술관

광주일보 '새마을시장' 공동기획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完) 류성룡 '징비록'

문화 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 ⑤ 친절한 피아노 3중주팀 '트리오제트'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② 영화 '작은 아씨들'과 베토벤의 '비창'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③-통도사 부처님의 진신사리 모셔진 '불보사찰'